

2023년 신년 1강 메시지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말씀/ 이사야 43: 1-21

요절/ 이사야 43:19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에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러시아의 침공으로 시작된 우크라이나의 비극이 9개월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무고한 우크라이나 백성들의 희생뿐만 아니라 영문도 모르고 전쟁터에 끌려와 수없이 죽어가는 러시아의 청년들의 모습도 너무나 참혹합니다. 약 2,600년 전 이스라엘도 당시 강대국이었던 앗수르와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 국토가 유린당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거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며 수많은 죄를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맹렬한 분노와 무자비한 전쟁의 심판을 쏟아 부었습니다(사 42:25). 오늘 말씀은 원문을 보면, 이러한 상황에서 반전을 알리는 ‘그러나 이제’(But now)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이제 하나님은 전쟁으로 망한 백성들에게 구원을 선포하십니다. 이 구원은 이전의 것보다 훨씬 더 영광스러운 ‘새 일’입니다. 이 ‘새 일’은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행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그 ‘새 일’이 무엇인지를 알아보고, 다가오는 2023년 하나님이 행하실 반전의 ‘새 일’에 쓰임받기를 기도합니다.

다같이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으로 나라를 잃고 이역만리 타국에 포로로 끌려와 70년 째 노예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포로로 끌려가기 전까지만 해도 영원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특별한 백성이라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자신들을 열방 위에 우뚝 세울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런데 작금의 현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부르신 것을 후회하여 이방 땅에 버린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았다 생각하니, 슬프고 무서웠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곱아, 이스라엘아’라고 부르시며,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그들을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애굽에서 노예생활을 하던 그들을 구속하셨습니다.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지명하여 불러 주셨습니다(출 19:6). 하나님은 이런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그들에게 ‘너는 내 것이라.’, ‘넌 내꺼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지금까지 너희들을 한 번도 버리지 않았으며, 앞으로도 영원히 버리지 않고 함께 하겠다는 위로와 사랑의 말씀입니다.

2절을 보십시오. ‘물’과 ‘불’은 생명을 위협하는 환난을 뜻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현재 바벨론 포로생활을 하며 겪고 있는 시련을 가리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서 인권이 보장되지 않는 삶을 살았습니다. 바벨론 제국은 전쟁 포로들을 노예로 삼아 성을 쌓게 하고 도로를 닦게 하였습니다. 수없이 채찍을 휘두르며, 조금이라도 말을 듣지 않으면 바벨론 수도 한 복판을 흐르는 유프라테스 강에 던져버리겠다고 위협하였습니다. 일부 똑똑한 엘리트 청년들은 궁중에 취업이 되어 왕을 섬기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 역시 바벨론 왕의 말 한마디면 언제든지 파리 목숨처럼 죽을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바벨론에 포로로 가 있던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금 신상에게 절을 하라’는 왕명을 거역했다는 이유로 극렬히 타는 뜨거운 풀무

불에 던져졌습니다(3:19-23).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유프라테스 강 물이 그들을 삼키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불꽃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사르지 못하게 하셨습니다(단 3:25-27). 오히려 그들의 죄를 씻어 주시고, 정금같이 연단해 주셨습니다.

4절을 보십시오. 자녀가 부모 가슴에 못을 박고, 집을 나가서 어떤 상태에 있든, 부모에게는 여전히 소중하고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눈에도 자신이 창조하고 구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죄를 짓고 포로생활을 하고 있어도 여전히 보배롭고 존귀합니다. 그래서 변함없는 사랑으로 함께 하며 지켜주는 것입니다.

몇 년 전 책임목자가 된 저는 이전부터 해오던 학생 역사뿐만 아니라, 센터내 모든 역사를 챙기며 구성원들 전체를 품고 섬겨야 했습니다. 주일 메시지도 매주 전해야 했는데, 생각지도 못했던 건축역사까지 진행해야 했습니다. 저는 일이 많아 집에 못 들어가고 센터에서 잘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 일은 열심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대부분 서울대 출신으로 한분 한분이 다 뛰어난 동역자들을 섬기기에는 저의 인격과 실력이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제가잘 섬기지 못해 떠나간 사람들도 있었고, 여러모로 허물을 많이 드러내었습니다. 사탄은 이런 저를 끊임없이 공격했고, 어찌하든 저를 넘어뜨려 관악3부 공동체를 무너뜨리고자 하였습니다.

엿친 데 덮친 격으로 아내가 유방암에 걸렸습니다. 수술을 받아보니 암 길이가 12cm로 말기에 해당되었습니다. 항암치료로 몸이 약해져 세 차례나 다리를 접 질러 7군데 이상의 뼈가 부러졌습니다. 그러자 눈 압이 올라가 녹내장을 앓던 눈이 통제 불능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양쪽 눈 모두 절반가량의 시신경이 손상되었습니다. 한번은 앞이 잘 보이지 않아 넘어졌는데, 둔탁한 나무에 코를 그대로 찢어 코뼈가 주저앉아 큰 수술을 받아 한동안 입으로만 숨을 쉬어야 했습니다. 아내는 외아들을 데려가신 하나님이 더 이상은 큰 고난을 주지 않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고난이 계속 이어지자, 하나님께 제발 자기를 빨리 데려가 달라고 울부짖었습니다. 어린 두 딸들도 엄마와 같이 울었습니다. 집안이 울음소리로 가득했습니다. 정말 이러다 집안이 다 불타 없어질 것만 같았습니다. 저는 밤새 십자가 찬송을 부르면서 눈물로 기도로 밤을 새우기도 하였습니다.

저는 예전에는 밤에 누우면 10초도 안되어 잠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점차 불면의 밤을 보내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밤에 짜파게티를 하나 끓여먹어야 잠이 왔습니다. 그러다보니 몸무게가 80kg이 넘어갔습니다. 의사는 저의 배를 초음파 검사를 해 보더니, 지방이 많아서 하얗고 장기가 하나도 안 보이고, 지방간 수치가 너무 높아 간암에 걸릴 것 같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당시 위암으로 투병중이던 고 진여호수아 선교사님을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암이 얼마나 파괴적인 것인지 잘 알았습니다. 센터에 스텝 목자가 저 혼자 밖에 없는데, 암에 걸려 입원하면, 가족은 물론이고 센터의 하나님의 역사를 망칠 것 같았습니다. 거기다가 저는 통풍과 척추관절염 증상으로 일년에 서너 번은 다리를 절며 목발을 짚고 다녔습니다. 앉고 일어설 때는 염증 때문에 부어서 퍼지지 않는 무릎을 펴느라 극심한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간 저를 아끼는 많은 분들이 운동을 권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전체 역사 외에도 매주 10팀 이상의 말씀공부를 비롯해서 양들과 리더들을 섬기느라 바쁘다는 생각에 하루 5분도 저를 위한 운동 시간을 낸다는 것이 마음도 안 동하고 안하던 운동을 할 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그러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하루 한 시간 운동을 하게 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기도 후엔 날마다 1시간 이상 캠퍼스를 한 바퀴 뛰며 몸무게를 15kg이상 줄였습니다. 그리고 꾸준한 피트니스로 몸도 근육질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던 중 새벽 4시쯤 센터서 혼자 기도하다가 요로결석으로 쓰러졌습니다. 겨우 일어나 아내에게 전화를 했더니 아내가 119를 불러

주었고, 전화를 받고 도착한 응급차에 실려 갔습니다. 그때 차 뒤로 멀어지는 센터를 바라보며 “하나님이 부르시면 이렇게 가족들이나 센터 목사님들과 한마디 작별 인사도 못하고, 세상을 하직할 수도 있는 것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기도만이 살 길이라 생각하고 새벽 3시 전에 일어나 기도하였고, 한동안은 하루 3시간씩 기도하였습니다. 주일 메시지는 매주 약 20번은 고쳐 쓴 후 성령을 간절히 의지하는 마음으로 전하였습니다. 틈만 나면 성경을 연구하고 특히 창조신앙과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더욱 깊이 이해하고자 투쟁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창조와 복음 신앙을 리더들과 오늘날 양들에게 어떻게 설득력있게 잘 전할 수 있을지에 대한 위한 말씀공부 자료를 준비하였습니다. 이렇게 기도와 말씀에 힘을 쓰자, 성령의 역사를 시기한 사탄이 어떤 살벌한 말과 비난으로 공격해 와도 웬만큼은 견뎌낼 수 있는 멧집이 생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아내가 근 20년간 앓아오던 우울증이 사라졌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원망과 불평이 죄인 것을 깨닫고 회개했더니 깨끗하게 나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얼굴을 보니 기쁨과 감사가 가득하였습니다. 아내가 천사같이 아름다웠습니다. 아내는 앞으로는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싶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도 환자들을 이전과는 달리 예수님의 마음으로 섬기며 입원한 환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기도해 주었습니다. 마음을 열면 일대일을 해 주며 주일예배에까지 초청하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의사가 된 이후 처음으로 병원 친절의사로 뽑히기도 하였습니다. 센터도 새롭게 겸손한 사랑의 공동체가 이루어지게 해 주셨습니다. 인턴 목자나 부 목자 없이 스텝이 저 혼자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과 결혼하여 예수님만 사랑하는 풀타임 사모님들을 많이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헌신적인 평신도 목사님들을 많이 세워주셨습니다. 저는 이 분들을 보며 다시금 활발한 학생역사를 섬길 힘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단순히 포로생활 속에서도 죽지 않고 살아남도록 지켜주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14절을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벨론에서의 구체적인 구원계획을 알려주십니다. 14절을 보십시오. 여기서 ‘한 사람’은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택해서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그 사람은 페르시아 제국을 건설한 고레스 왕입니다. 당시 바벨론의 수도는 유프라테스 강을 끼고 동과 서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바벨론의 권력자들은 그 강에 유람선을 띄우고 오락을 즐겼습니다. 악기를 잘 다루는 이스라엘 음악가들을 불러 ‘닐니리아 닐니리아 니나노~’ 하며 흥을 돋우게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후에 하나님의 예언대로 고레스의 군대가 침입해 왔을 때, 바벨론의 지배층인 갈대아 사람들은 그 배를 타고 도망가기에 바빴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국으로 데려가기 위해 고레스에게 애굽과 그 아래에 있던 도시국가들인 구스(Cush)와 스바를 이스라엘의 속량물(ransom)로 내어주었습니다(3). 역사적으로 고레스 왕은 그 세 나라를 정복하기 위해 교두보를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세 나라로 가는 길목에 위치한 팔레스타인 유대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려보내 나라를 재건하게 하였습니다. 당시 바벨론의 몰락과 이스라엘의 해방은 천지가 개벽할 정도로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정말 이 일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은 그 일이 일어나기 전까진 믿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예언을 믿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출애굽 때의 일을 언급하셨습니다. 15-17절을 보십시오. 당시 노예백성 이스라엘이 애굽을 탈출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더구나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애굽의 정예부대가 말 병거를 타고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절박한 상황에서 창조주요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께서는 바다 가운데 길을 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게 하셨습니다(15-16). 애굽의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들은 일시에 엎드러져 꺼져가는 등불처럼 소멸되게 하셨습니다(17). 하나님은 이렇게 옛날에 있었던 출애굽을 언급하시며, 출바벨론의 역사도 하나님께서 능히 일으킬 수 있음을 믿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셨습니다.

1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제 출바벨론의 역사를 행하실 하나님은 이전의 치욕스러웠던 바벨론에서의 포로생활은 기억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서의 70년간의 망국의 설움에 대해 몸서리쳐지는 기억이 있었을 것입니다. 선민이 이방인들에게 조롱을 받은 것에 대한 수치심이 있었을 것입니다. 자신들을 이렇게 포로생활을 하게 했던 앞 세대에 대한 원망과 미움과 분노도 있었을 것입니다. 앞 세대들중 그때까지 살아남은 이들은 자신들 때문에 자식들 세대가 나라를 잃고 수취와 모욕을 당하게 된 것에 대한 자책감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이런 좋지 않은 기억은 하지 말고 생각하지도 말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과거 내 인생을 구겨버린 상처에 대해 그대로 되갚아 주기 전에는 결코 기억에서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미움과 복수심은 내 영혼을 파괴합니다. 아픈 과거를 자꾸 되새김질 하면 우울증에 걸립니다. 공황장애가 오고 자꾸만 자신의 영혼을 수렁에 빠지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는 새로운 일을 꿈꾸고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이전 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미움도 슬픔도 다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에 내려놓고, 잊어버려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영광스럽던 출애굽의 과거도 잊어버려야 합니다. 출애굽을 언급한 것은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기억하지 말라니! 하나님의 변덕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이는 화려했던 과거에만 집착하고 옛날 생각만 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과거를 뛰어넘어 미래의 더 크고 더 영광스러운 일을 맞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큰 일을 한 사람은 쉽게 과거를 잊지 못합니다. 입만 열면 ‘라떼는 말이야’라며 자신의 과거를 자랑하기에 바쁩니다. 이런 사람은 현실에 충실하지 못하고 미래로 뻗어갈 수 없습니다. 과거의 승리와 영광에 대한 추억은 흘러가는 강물에 씻어버려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루실 더 크고 더 영광스러운 일은 무엇입니까? 1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에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하나님은 출애굽 때는 바다를 갈랐습니다. 그러나 이번 출바벨론의 역사는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는 것입니다. 광야엔 험하고 높은 바위산도 있고, 낮은 저지대도 있습니다. 그곳에 길을 내는 일은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위산을 깎고 낮은 저지대를 메우는 등 대규모 토목공사를 통해 고속도로를 내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나와 하나님이 주신 땅 고국으로 안전하게 돌아가게 해 주겠다고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메마른 사막에 샘을 내어 강을 만들고, 길을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시게 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20절을 보십시오. 그때 많은 백성들이 사막으로 난 길을 걸으며, 길옆을 흐르는 강에서 물을 마시며 즐겁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때에 승냥이와 타조 같은 사막의 들짐승들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며 하나님을 존경하게 됩니다.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는 일은 가까이는 출바벨론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속량물로 내어주어 이루실 인류 구원역사를 의미합니다. 출바벨론이 일어나고 약 5백년 후 예수님께서 인류를 구속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이때 광야 같은 세상에서 죽어가던 이들에게 창조주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생명의 길이 열렸습니다(히 10:20).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믿을 때,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내 속에서 강같이 흘러나오게 되었습니다(요 4:14; 요 7:38). 이들을 통해 들짐승 같았던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들어가 그들도 하나님을 존경하며 찬송하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죽음으로 가득했던 지구촌 곳곳에 밝고 아름다운 생명의 꽃들이 화려하게 피어오르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일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어질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밤하늘에 빛나는 수많은 별들을 비롯한 만유가

회복되며 새 예루살렘성이 내려와 하늘과 새 땅이 온 우주에 펼쳐질 것입니다(계 21:5). 예수님은 믿는 우리를 죄와 죽음의 나라에서 구속하여 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질 이 일은 참으로 무생물인 바다가 갈라져 인간의 육신의 생명을 일시적으로 구해주는 옛날 일과는 비교할 수 없는 ‘새 일’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지난 62년 동안 우리 UBF 안에서 이 새 일을 행하셨습니다. 초창기 광주 캠퍼스에서는 약 800명이 넘는 학생들이 GBS에 참여하였습니다. 90년대는 매년 100여명의 선교사들을 파송하여, 지금까지 총 3,000명이 넘는 선교사들을 파송했습니다. 특히 80년대까지 철옹성같이 닫혀 있던 소련에도 철의 장막을 뚫고 들어가 모스크바와 소련 전역에 복음의 길을 내었습니다. 이렇게 파송된 저희 선교사님들이 가는 곳곳마다 길이 나고 생명의 샘이 터졌습니다. 그 결과 들짐승 같던 전 세계의 많은 대학생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2천년대 들어 사탄은 이 역사를 시기하여 무자비한 공격을 퍼부었습니다. 지도자들을 넘어뜨렸고, 지역 간에, 세대 간에, 평신도와 풀타임 간에 불신과 반목을 일으켰습니다. 전국적으로 모임이 갈라졌고, 많은 멤버들이 마치 나라 잃은 백성들처럼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남아 있는 사람들도 힘을 잃었습니다. 사탄은 우리 모임뿐만 한국 캠퍼스 전방에 걸쳐 안티기독교 분위기를 형성하였습니다. 최근 서울대 총장은 금주안에 차별금지법의 다른 이름인 인권헌장을 발표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인권헌장은 동성애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강력한 처벌의 근거가 되는 조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인권헌장이 발표되면, 전국의 다른 캠퍼스들에도 영향을 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기독교는 캠퍼스에서 설 자리를 더욱 잃게 될 것입니다. 거기다가 최근엔 수년째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 상황으로 캠퍼스에서 학생들에게 접근하는 것조차 어렵게 되었습니다. 현장 예배나 오프라인 모임도 어려워졌습니다. 저희 센터의 한 시니어 목자님은 주일날 전도를 나갔는데, 한 학생이 손가락 욕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참고 다른 곳으로 가서 전도를 하는데, 그곳까지 쫓아와 거의 60이 다 된 선배를 팔꿈치로 명치를 가격하고 갔습니다. 자매님들이 전도를 나갔을 때는 완장을 찬 학생회 무리들이 와서 양에게 건네준 전도지를 빼앗아 돌려주면서 전도를 하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최근 목회데이터연구소가 발표하 리포트에 의하면, 기독교대학생들의 개신교 이탈률이 코로나를 거치면서 5년 사이에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전도만 어려운 것이 아니라, 있던 양들도 떠나가는 황폐한 상황입니다. 그야말로 캠퍼스의 영적 현실이 광야와 같고 황폐한 사막같이 되어버렸습니다.

저희 센터 목자님들은 이런 중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캠퍼스에 올라가 피싱을 하고 양들을 얻어왔습니다. 그런데 양들이 멀쩡한 서울대생인데도, 속은 우울증, 조현병(정신분열증), 강박관념, 공황장애 등 정신질환에 걸려 있었습니다. 어떤 양은 자살 충동에 시달리며 한 밤 중에도 목자님에게 손목을 자해하는 사진이나 누군가를 죽이고 싶다며 피를 흘리는 사진을 보내오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계속해서 캠퍼스 역사를 섬겨야 하는 것인지, 이 길이 맞는지, 하나님이 이제는 UBF를 버린 것은 아닌지, 두려워지기도 합니다.

이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하나님이 저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려고 하는가 귀를 기울여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너의 창조주요 구속자이며 너를 캠퍼스의 목자로 지명하여 불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이제껏 한 번도 버린 적이 없고, 앞으로도 계속 함께 하며 지켜줄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말씀을 계속 연구하다보니, 하나님은 캠퍼스의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광야에서도 길을 내시며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심을 알 수 있었습니다. “새 일을

행하리라.”는 말을 영어로 보면, “I am doing a new thing.”입니다. 생각해 보니, 하나님은 이미 새 일을 행하고 계셨습니다.

저희 관악 3부 동역자들은 코로나로 양들을 만나기 어렵고 핍박이 있는 중에서도 캠퍼스 전도를 즐기치게 나갔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지난 7월 코로나 이후 처음으로 야외에서 가진 여름수양회에 많은 양들을 보내주시고, 큰 성령의 역사를 이루어주셨습니다. 가을학기엔 17명의 형제 자매들이 참여한 천로역정 심포지움을 시작으로 매주 수요일 캠퍼스에서 창세기 성경학교를 열었는데, 평균 20명 이 넘는 학부생 양들이 꾸준히 참석했습니다. 올해 초 저는 시간이 날 때마다 창세기를 새롭게 연구하고 요즘 양들에게 맞추어 창세기 노트도 많이 업그레이드 했습니다. 그러한 연구를 기초로 평신도 목자님들을 훈련하여 간증식 메시지를 전하게 했는데, 과거 저희 학생 시절처럼 양들이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많은 양들이 감동을 받았으며 기쁘게 소감을 발표했는데, 창세기 메시지를 수없이 들은 목자님들조차 마치 처음 듣는 창세기 메시지 인양 기뻐하면서 이미 들은 메시지의 원고를 받아갔습니다.

지난달 있었던 가을 MT 수양회에는 가을학기에 피싱을 통해서 얻은 새 양들만 25명이 참석했습니다. 현재 예배에는 새 양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예배 때는 기존보다 1.5배 이상 크게 지은 새 예배홀 제일 뒤편까지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물리학과 1학년 형제는 올해 여름 수양회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거듭났는데, 예배에도 꾸준히 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 피싱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1학년 형제는 브로컨 가정에서 자랐는데, 엄마없이 무거운 물건을 드는 등 아르바이트를 해서 돈을 벌어서 아버지와 동생을 섬기고 그런 중에 서울대에 들어온 형제인데, 누가복음 주일메세지를 듣고는 십일조를 결단하고 장막에도 들어왔습니다.

대학시절 저는 잠시도 정신을 집중하지 못할 정도로 심각한 정신분열증을 겪었습니다. 마음이 늘 불안했고,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습니다. 그런데 새벽을 깨워 날마다 십자가 보혈 찬송가를 1시간씩 부르며 생각나는 모든 죄를 회개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치료해 주시고 마음에 평안을 주시며 맑은 정신을 갖게 해 주셨습니다. 센터 리더들을 돌아보니 대학시절의 저와 같이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통한 치유의 경험을 가진 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과거 우울증, 죽음에 대한 심각한 공포, 강박관념이 있었지만, 지금은 모두 훌륭한 교수 목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최근 이 사실에 새삼 주목하면서, 현재 죄로 병든 채 센터에 나오고 있는 많은 형제, 자매들 가운데도 죄사함을 통한 치유와 구원이 동일하게 일어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리더들에게 적극 이런 믿음을 심으면서 아무리 심하게 병들었더라도 다 영접하고 섬기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앞으로 병든 병아리 같은 청춘들을 새로 구입한 넓은 장막에 담아 십자가의 복음으로 치유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장차 서울대생 7천명이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으로 치료를 받아 독수리처럼 비상하여 2041년까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와 전 세계 창공으로 날아가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코로나를 비롯한 여러 고난과 시련을 통해 한동안 우리를 연단하시고 준비시켜 오셨습니다. 앞으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새 일은 이전 6, 70년대나 8, 90년대의 영광은 비교도 안될 만큼, 크고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더 이상 그 시절, 과거 이야기는 하지 맙시다. 이제는 더 크고 영광스러운 새 일에 대해 이야기꽃을 피우기를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도 놀라운 구원을 베푸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는 하나님이 창조주로 참 신이심을 증언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9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법정에서 당신이 고소한 열방 민족들에게 바벨론의 몰락과 이스라엘의 해방을 예언한 신이 있느냐고 물어보았습니다. 모두들

유구무언이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바벨론에서 이끌어낸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증인으로 세웠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이 섬기던 마르둑이나 느보 같은 우상들은 다 가짜며, 하나님만이 창조주요 구속자로서 참 신임을 증언해야 합니다. 5-6절을 보면, 이스라엘은 나라가 망하면서 백성들이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가족과 친척들이 생이별을 하고 생사조차 몰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동서남북으로 흩어진 모든 백성들을 다시 불러 모으셨습니다. 아무리 먼 곳으로 흩어져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땅 끝까지 가서 찾아오셨습니다. 그 이유는 창조주요 유일한 구속자이신 하나님의 증인이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11-12). 21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지으신 목적은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 함입니다(21). 증인의 삶은 이 목적을 따라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현재 서울대 캠퍼스에는 유학생들이 120개국에서 와 있다고 합니다. 다른 대학 캠퍼스들도 비슷한 상황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동서남북 사방에서 양들을 불러 모으셨습니다. 이들만 잘 도와도 안방에서 세계선교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이들을 우리가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20절을 보면 1인칭 단수대명사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새 일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합니다. 즉, 내가 아니라 창조주요 예수님을 속량물로 내주신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은 이 새 일에 우리를 써 주십니다. 이미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새 일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2023년 새 일 가운데 저희를 계속해서 사용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2041년까지 세계 233개국에 10만명 선교사를 파송하는 역사에 저희를 써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 캠퍼스 법정에서 하나님만이 창조주이시며 참 신이심을 증거하고 찬양하는 역사가 저희를 통해 힘차게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